

# ‘유치원 CCTV’ 법안 “학대예방” vs “빅브라더”

### 전국 유치원 CCTV 설치 비율 40% 이하 “교사 인권침해...학급 인원수 조정 먼저” “아이들 의사표현 어려워...교사 보호 가능”

유치원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지난달 발의된 후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팽팽한 찬반 설전이 오가고 있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4일 유치원 교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사항이지만 유치원은 선택이다. 교육부 자료 기준 지난달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은 39%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유치원 CCTV는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안전을 도모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글을 김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자 네티즌들은 법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양분

돼 댓글을 달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1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법안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교사 인권, 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선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한 네티즌은 “유치원 교사는 식사 시간을 포함한 9시간 근무 중 최소 5시간 이상을 유아들과 함께 지내는데 절반 이상의 근무시간을 CCTV를 통해 감시한다는 건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판옵티콘을 배경으로 한 조지오웰의 소설 1984가 생각난다”고 했다.

이어 “아동학대를 일으킨 소수의 교사들이 CCTV가 없어 학대를 일으켰겠느냐”면서 “현재 3~5세 유아 학급 인원수가 초등학교 1~2학년 교실보다 더 많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등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게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어린이집에선 학부모들이 CCTV를 확인하고 산만한 편인 다른 집 아이에게 낙인찍는 경우도 있다”며 “CCTV 때문에 분란만 생긴다”고 했다.

법안을 찬성하는 측은선 CCTV가 오히려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학부모로 추정되는 이는 “교사의 사생활을 보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일들을 보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며 “CCTV가 오히려 누명을 풀어주는 면에서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학급당 유아수 감소와 CCTV 설치는 별건으로 따져야 한다”며 자신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나이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초중고와 달리 CCTV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오는 6일 김 의원을 방문해 의원 면담을 진행하고 법안 반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선욱기자

## 순천소방서, 구례군 합동 수난구조훈련 실시

순천소방서는 지난 6월 25일 구례군 문척면 섬진강 일대에서 구례군과 합동으로 수난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물놀이 안전사고와 집중호우·장마 등 풍수해를 대비해 수난구조대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구례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순천소방서 측 20명, 구례군 측 21명이 참여했으며 고무보트 등 20점의 수난구조장비를 활용하여 수상·수중 인명구조기법 숙달, 익수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약 2시간여의 훈련을 마친 하수철 순천소방서장은 “구례군에 매년 피서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은 구례가 천혜(天惠) 자연환경을 갖췄다는 방증이기도 하나 그만큼 수난구조 발생 빈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작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구례를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만큼 순천소방서는 구례군 뿐 아니라 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올 여름 수난사고 등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소방서는 작년 여름 약 두 달여간(7월~8월) 31건의 수난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10명을 구조하였으며, 수해 피해주민을 돕기 위해 구례 수해지역 자체점검 유예하고(수해로 인해 자체점검이 불가한 경우), 수해 지역 피해복구를 위해 전직원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2021년에는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 대책을 수립하여 관내 자연재해 우려지역 현장점검(86개소),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정비(14개소), 구조대원 수난구조훈련 등 여름철 수난사고·풍수해 대비에 주력하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 광양경찰, ‘청소년비행 대책협의회’ 개최

광양경찰서는 지난 7월 1일 청소년비행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청소년비행 대책협의회는 지역 내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현황을 분석하고 청소년 범죄예방과 위기청소년 선도보호와 지원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이번 회의는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 등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되었다.

참여위원들은 향후 지원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에 관한 정보공유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날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변재웅 위원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청소년 선도보호의 체계적 지원활동을 통해 광양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보태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중호 광양경찰서장은 지역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비행 대책협의회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광양경찰은 제복 입은 시민의 경찰로서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기자

## 김홍희 해양경찰, 완도해양경찰서 현장소통 간담회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완도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업무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현장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홍희 청장의 방문은 여름철 해양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현장 대응 상황과 하반기 업무 추진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일선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루어졌다.

김 청장은 성인지 감수성과 직원들간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특히, 현장에 강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힘든 상황 속에도 해양주권 수호와 해상치안을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며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홍희 청장은 김동훈 경위를 장비관리 업무유공, 위영삼 경사를 화재대응 훈련 유공, 박현규 순경을 인명구조 유공으로 각각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강진=이민혁기자

# 30대 男 안센 접종 11일 후 심정지·뇌출혈 사망...“인과성 조사중”

## “이상반응 역학조사·부검 진행 중”

서울에서 사망한 30대 남성이 안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 있어 방역 당국이 이상반응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서울 30대 사망자와 관련해 “해당 사례는 현재 이상반응 역학조사와 부검이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날 해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 거주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10일 안센 백신을 접종하고 11일 지난 21일 심정지,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접종 당일 고열과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을 보여 해열제 복용 이후 다음날부터 출근했으나 19일 새벽 사망했다.

태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단 관계자는 “인과성 조사까지 1~2개월 소요가 예상되나 부검 결과 및 사례 내용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에서 안센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112만9439명이다. 안센 백신은 예비군·민방위 등 대부분 30대 남성을 중심으로 접종이 이뤄졌다.

이상반응은 6769건이 신고돼 신고율은 0.60%다.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사망 신고된 사례는 30대 남성 2명이다. 신경계 이상반응 등 주요 이상반응은 226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47건이며 6494건은 근육통·두통·발열·오한·메스꺼움 등 접종 후 흔하게 나타나는 이상반응이다.

김민정기자

## 자기 집에 불질러 노모 숨지게 한 50대 긴급체포

충남 부여군에서 발생한 화재 생존자인 아들이 불을 질러 엄마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부여경찰서는 현주조물방화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 47분께

충남 부여군 만지리의 한 주택에서 라이터로 거실에 있던 이불에 불을 질러 엄마인 B(83)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해 방행을 저질렀으며 불을 지른 뒤 빠져나갔고 안에 있던 B씨는 불을 피하지 못해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평소 A씨의 잦은 음주 습관으로 다툼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